

## 少陰人 香砂養胃湯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敬堯\* · 韓宗鉉\* · 洪淳用\*

### I. 緒 論

本來 韓醫學은 中國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이를 東洋의 모든 나라가 받아들여서 民族醫學으로 發展해 왔고 이의 理論과 經驗을 통하여 東洋사람의 머리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基盤위에서 東武 李濟馬先生<sup>2)</sup>은 A.D 1894年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人間은 天賦의으로 받은 臟腑의 虛實이 있고, 이에 따른 喜·怒·哀·樂의 性情이 作用하여 生理現狀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또 心理·病理 및 治療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점을 題示하였고 體質에 적부하는 飲食과 養生法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論議되고 있다.<sup>1)</sup>

李<sup>2)</sup>는 東醫壽世保元에서 「人稟臟理에 有四不同하 니 肺大而肝小者를 名曰 太陽人이요, 肝大而肺小者를 名曰 太陰人이요, 脾大而腎小者를 名曰 少陽人이요, 腎大而脾小者를 名曰 少陰人이니라」고 하여 사람을 臟理(臟腑의 生理機能)의 大小(優劣)에 依하여 特性的 體質이 있다하고, 이에 따라 사람의 體質을 太陽人·太陰人·少陽人·少陰人의 四類型으로 分類하여 傳來的 醫學體系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類型體質의 分類를 試圖하여 獨創의 理論體系의 四象體質醫學을 創案하였다.<sup>26)</sup>

이 體質에 關한 研究는 臨床面에 있어서 重

要한 것으로서 더욱 先天體質(遺傳體質)은 疾病에 至大한 影響을 주므로 東·西醫學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형의 類型體質論이 發表되었다.<sup>26)</sup>

東洋醫學의 原典인 內經 二十五人論編<sup>31)</sup>에서는 類型體質을 五行論에 立脚하여 五行體質로 分類하고 分類된 五類型體質을 다시 五分類함으로써 二十五人으로 나누었고, 通天節<sup>31)</sup>에서는 陰陽五態人이라 하여 다만 五類型體質로만 分類하였다.

漢代의 張<sup>28)</sup>은 病症候群을 三陰과 三陽의 六經證候群으로 分類하였는데 이는 藥物投與面에서 體質을 分類하였고<sup>3)</sup>, 明代의 張<sup>29)</sup>은 「陽臟之人 多熱 陰臟之人 多寒」이라 하여 陰陽體質論을 主張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李<sup>2)</sup>는 四象類型體質을 發見하고 體質生理·病理·體質鑑別·診斷 및 體質에 맞는 藥物選擇과 方制作成을 考察하여 直接 臨床에 活用하고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함으로써 四象體質醫學의 分野를 開拓하였다.<sup>26)</sup>

李<sup>2)</sup>는 少陰人 病證을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裡寒病으로 分類하였는데, 少陰人 表病(腎受熱表熱病)을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兩分하였고, 少陰人 裡病(胃受寒裡寒病)을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兩分하였다. 少陰人 裡病中 太陰證은 溫胃而降陰시키는 原理로 藿香正氣散·香砂養胃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湯·薑朮寬中湯·蘇合香元을 使用하고, 少陰證은 健脾而降陰시키는 原理로 官桂附子理中湯을 使用한다 하였다.<sup>26)</sup>

## II. 研究 理由 및 目的

少陰人 香砂養胃湯은 眞信의 「醫鑑書」에 나오는 香砂六君子湯의 變方으로서 李<sup>2)</sup>에 依해서 少陰人의 腎大脾小한 體質에 맞게 再構成한 것이다.

이에 著者는 40餘種의 歷代文獻을 通하여서 「東醫壽世保元」 以前의 醫書에 수록된 香砂六君子湯 및 香砂養胃湯과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少陰人 香砂養胃湯과의 處方構成 및 效能에 있어서 相互類似點을 發見할 수 있었으며 또한 少陰人 香砂養胃湯은 少陰人 體質에 맞는 少陰人 藥物로 構成되어 있어 少陰人의 脾胃疾患에 廣範圍하게 應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本方의 處方構成 및 藥物의 效能·主治를 文獻의 考察을 하여 本方과 少陰人 脾胃疾患과의 關係를 밝히고자 한다.

## III. 本論 및 考察

### 1. 少陰人 體質의 特徵

體形과 容貌는 中焦 脾胃가 虛弱하고 下焦 腎膀胱이 實하여 上體보다 下體가 發達되어 있다. 그러나 實은 上下가 잘 均衡이 잡히고 體任自然而簡易少巧하다. 키는 倭小한 편이 많으나 或 長大한 者도 있다. 容貌는 纖細하며 女子는 오밀조밀하고 愛嬌가 있다. 이마가 나오고 比較的 눈이 작으며 눈에 精氣가 없다. 少陽人이 反射型이라면 少陰人은 吸收型

이라 하겠다. 피부가 유연하고 鬚이 적으며 겨울에도 손발이 잘 트지 않는다. 몸의 均衡이 잡혀서 걸음을 걸을때는 自然스럽고 얇전하다. 말할때는 눈웃음을 짓고 조용하고 沈着하며 그리고 條理가 整然하다. 그러나 지나친 論理나 천박한 제스처를 쓸 때에는 도리어 野卑하게 보인다. 가끔 太息을 하는 일이 있어 남보기에 는 근심이 있는 사람으로 誤解하기 쉽다. 大體로 少陰人은 消化가 잘되고 大便이 약간 굳고 順通하면 健康한 사람이다.

心理狀態는 內性的이요, 社交的인 편이다.

매우 柔軟해 보이지만 外柔內強하다. 작은 일에도 細心하고 過敏性이 있어 늘 不安定한 마음을 갖는다. 我田引水格으로 自己體位만 생각하며 實利를 爲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頭腦가 聰明하여 判斷力이 빠르고 組織的이며 事務的이다. 많은 일은 빈틈없이 處理를 잘하며 自己가 할 일에 干涉하거나 손대는 일을 매우 싫어한다. 또 남의 잘하는 일에 질투가 甚하고 知能이 發達되어 잘못흐르게 되면 끈직한 事件도 저지른다. 偏私心이 많아 남을 誤解하기 쉽고 한번 먹은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再燃한다. 매우 打算的이어서 적은 損害도 容認하지 않는 吝嗇하고 不信하는 일이 많다. 自己보다 強한 者 앞에서는 아부하며 是非가 생길때는 곧 後退를 하나 機會를 보아 側面으로 報復을 한다.<sup>1,2,25)</sup>

### 2. 少陰人 香砂養胃湯의 起源

少陰人 香砂養胃湯은 A.D 1894年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sup>2)</sup>에 처음으로 紹介된 處方으로 少陰人 胃腸疾患의 代表的인 處方이며 여기에 加味하여 廣範圍하게 活用한다고 하였다.<sup>1)</sup>

本方은 眞信의 「醫鑑書」에 나오는 香砂六

君子湯의 變方으로 以後 이와 비슷한 處方이 많이 나왔으며 文獻에 따라 處方內容 및 藥物容量이 약간씩 變化하였다.<sup>1)</sup>

### 3. 少陰人 香砂養胃湯과 香砂六君子湯 및 香砂養胃湯과의 比較

少陰人 香砂養胃湯은 香砂六君子湯의 變方으로서 香砂養胃湯과 더불어 歷代醫書中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東武 李濟馬先生은 東醫壽世保元<sup>2)</sup>에서 少陰人의 腎大脾小한 體質에 맞추어 약간의 藥物을 加減하여 새로운 少陰人 香砂養胃湯을 構成하였다.

香砂六君子湯은 人蔘·白朮·茯苓·甘草의 四君子湯에 陳皮·半夏를 加하여 六君子湯이 되고, 여기에 香附子(或 木香)·砂仁을 加하여 香砂六君子湯이 되었다.

謝等<sup>32-34,36)</sup>에 의하면 香砂六君子湯은 香附子(或 木香)七分, 縮砂仁 八分, 人蔘, 半夏 各一錢 白朮·茯苓 各二錢 甘草 七分으로서 治氣虛痰飲 嘔吐痞悶, 脾胃不化<sup>32)</sup> 寒濕滯于中焦而見脘腹脹痛, 胸悶噯氣, 可用于慢性胃炎, 潰瘍病, 慢性腹瀉<sup>33)</sup> 脾胃虛弱 腸鳴便唐<sup>34)</sup> 飲食不化 嘔吐泄瀉<sup>35)</sup>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며, 平岡<sup>39)</sup>은 上方中 木香을 去하고 藿香을 加하여 治脾胃虛弱 惡心嘔吐 飲食不思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며, 康<sup>14)</sup>은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各一錢半에 香附子, 砂仁을 加하여 理氣醒胃시키는 功效가 있어 處寒胃痛과 腹痛泄瀉를 治療한다 하였다. 辛<sup>20)</sup>은 康<sup>14)</sup>의 處方中에서 香附子를 去하고 木香을 加하였다.

金等<sup>4,6,8,9,17,18,19,21,22,27)</sup>에 의하면 謝等<sup>32-34,36)</sup>의 處方에 溫中消脹하는 厚朴과 止吐健胃하는 白豆久와 溫脾止瀉하는 益智仁을 加하여서 飲食不思하며 痞悶不舒하는 胃寒證에 使用하며<sup>8,9,17)</sup> 飲食不下 食後倒飽脾虛<sup>4,27)</sup> 食欲不振<sup>18)</sup> 便唐

脈濡者<sup>19)</sup>를 治療하는 效能이 있으며, 金<sup>21)</sup>은 胃가 虛하면서 消化不良 下垂 擴張等 冷症이 隨半되는 때에 使用하며 慢性胃炎 神經性胃炎 消化不良 胃虛冷 食慾減退 等에도 適應된다 하였다.

黃<sup>6)</sup>은 酒滯 氣鬱症에도 應用하며 脾虛에 人蔘 3~5錢을 加하며, 虛冷에 生干, 肉桂를 加하며 酒滯에 良干을 加하며, 食鬱에 枳實, 黃連을 加한다고 하였다.

洪等<sup>1,2,5,10,11,12,13,16)</sup>은 金等<sup>4,6,8,9,17,18,19,21,22,27)</sup>의 處方中에서 少陰人은 腎大脾小하므로 利尿할 必要가 없는데 白茯苓을 加하면 下氣만 되므로 除하고 代身 白何首烏를 加하였으며 少陰人의 不思飲食 消化不良 食後倒飽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以前의 歷代文獻中에 香砂六君子湯의 變方으로서 香砂養胃湯이 기록되고 있다.

金等<sup>3,6,8,9,17,19,21,22,23,27)</sup>에 의하면 白朮 一錢, 縮砂仁 蒼朮 厚朴 陳皮 白茯苓 各七分 白豆久 六分 人蔘 木香 甘草 各五分 生薑三片 大棗二枚로 構成되어 있으며, 金等<sup>8,9,17,21,22,27)</sup>은 飲食不思하여 痞悶不舒하는 胃寒證에 使用한다 하였으며, 黃<sup>6)</sup>은 慢性胃腸炎, 胃弱症 食慾不振 氣滯 胃아토니 胃擴張症 胃下垂에 效能이 있다 하였으며 宋<sup>29)</sup>은 健脾和胃의 效가 있어 飲食不思 痞悶을 治하고 白帶下에 用한다 하였으며 宋<sup>19)</sup>은 胸痛 胃下垂 胃無力等を 治하여 下痢清水에는 藿香을 加한다고 하였다. 謝<sup>32)</sup>는 金等<sup>3,6,8,9,17,19,21,22,23,27)</sup>의 處方中 蒼朮 人蔘을 除하고 香附子 枳實 藿香 半夏를 加하여 通氣和胃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며 平岡等<sup>18,39)</sup>은 金等<sup>3,6,8,9,17,19,21,22,23,27)</sup>의 處方中에서 香附子를 加하여서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口不知味<sup>39)</sup> 胃腸障礙 食慾不振 胃部痞悶 胸中不舒<sup>18)</sup>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다. 辛<sup>20)</sup>은

平岡 等<sup>18,39)</sup>의 處方中에서 草豆久代身 白豆久를 加하였으며 中國臨床手冊<sup>36)</sup>에서는 謝<sup>32)</sup>의 處方中 木香 白豆久를 除하여 溫中和胃시키며 不思飲食 嘔吐酸水 胃脘痞悶 四肢倦怠에 使用한다고 하였다.

李<sup>2)</sup>는 東醫壽世保元에서 香砂六君子湯을 少陰人의 腎大脾小한 體質에 맞게 少陰人 香砂養胃湯을 再構成하였다. 이것은 四象醫學에서 藥物療法는 藥材混用不可의 原則<sup>40)</sup>에 따라 四象體質에 各各 選擇의으로 作用하는 藥物만 處方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少陰人 香砂養胃湯의 構成藥物은 李 等<sup>1,2,4,5,10,11,12,13,16)</sup>에 의하면 人蔘 白朮 白芍藥 炙甘草 半夏 香附子 陳皮 乾薑 山查肉 縮砂仁 白豆久 各一錢 生薑三片 大棗二枚로 되어 있으며 洪<sup>1)</sup>은 脾胃가 虛弱하여 飲食消化가 안될 때 쓰는 代表的인 處方이며 急慢性胃炎 慢性大腸炎 胃無力 胃酸過多 胃潰瘍 口味가 없을때와 肺結核 初期에도 좋으며 喘嗽 및 傷寒陽明證에 腸液分泌가 안되어서 大便을 보지 못하는 데 效能이 있고 여기에 加味하여 廣範圍하게 活用할 수 있다 하였으며 或 人蔘을 白何首烏로 代身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李 等<sup>2,4,5,10,11,12,13,16)</sup>에 의하면 傷寒太陽證, 大腸怕寒, 陽明證成胃家實, 傷寒少陽證, 太陰證 胃弱及食滯, 食傷 痰滯 吞酸 嘈雜噎氣 果菜積食鬱 浮腫 裡熱 食脹 鼓脹 黃疸通治 便血 食痰 滯泄 痢疾에 用하며 下利清水에는 藿香을 加한다고 하였다.

#### 4. 少陰人 香砂養胃湯 構成藥物의 性味 및 效能

少陰人 香砂養胃湯의 構成藥物의 性味 및 效能에 對하여서 辛 等<sup>6,7,8,9,15,24,29,30,35,37,38)</sup>에 의하면 人蔘은 甘·微苦·微溫(或 微寒) 無毒

하고,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久服輕身延年 主五勞七傷 虛損痰弱 冷氣逆上 傷寒不下食 治肺胃陽氣不足 補中暖中 止渴生津液 治男婦一切虛證 明目開心 通血脈이라 하였고, 白朮은 苦·甘·溫·無毒하고, 止汗除熱消食 久服輕身延年不飢 風眩頭痛 治心腹脹滿 腹中冷痛 胃虛下痢 多年氣痢 除寒熱 止嘔逆 反胃利小便 主五勞七傷 補腰膝 長肌肉 和中補陽 消痰逐水 生津止渴 止瀉痢 除胃中熱肌熱 理中益脾 補肝風虛 心下急痛 心下水痞에 使用한다 하였고, 白芍藥은 苦·酸·微寒·無毒하며, 邪氣腹痛 除血痺 破堅積 寒熱疔瘡 止痛 利小便 益氣 通順 血脈 緩中 散惡血 逐賊血 去水氣 利膀胱大小腸 時行寒熱 中惡腹痛腰痛 治臟腑壅氣 強五臟 補腎氣 治時疾 骨蒸 婦人血閉不通 能蝕膿 女大一切病 胎前產後諸疾 治風補勞 退熱 除煩益氣 驚狂頭痛 目赤明目 瀉肝 安脾肺 止瀉痢固膝理 和血脈 理中氣 治脾虛中滿 止下痢腹痛後重의 效能이 있으며, 甘草는 甘·平·無毒하며, 灸則 溫하고 五臟六腑寒熱邪氣 堅筋骨 長肌肉 倍氣力 解毒 久服輕身延年 溫中下氣 煩滿短氣 止渴 通經脈 利血氣 解百藥毒 主腹中冷痛 治驚痢 除腹脹滿 補益五臟 腎 氣內傷 主婦人腰痛 月虛而多熱 安魂 定魄 補五勞七傷 一切虛煩 驚悸煩悶 健忘 通九竅 利百脈 益精養氣 壯筋骨 生用瀉火熱 熟用散表寒 去咽痛 除邪熱 暖正氣 養陰血 補脾胃 潤肺 解小兒 胎毒 驚癩降火止痛의 效能이 있으며, 半夏는 辛·溫·有毒하며, 傷寒寒熱 心下堅胸脹欬逆 消癰腫 消痰 下肺氣 開胃健脾 止嘔吐 去胸中痰滿 治吐食 反胃 霍亂 轉筋 腸腹冷治寒痰 形寒飲食傷肺而欬 消胸中痞 除胸寒 和胃氣 治痰厥頭痛 消腫散結 補肝風虛 白濁 夢遺帶下의 效能이 있으며, 陳皮는 辛苦·溫·無毒하며, 理氣健脾 燥濕化痰 脾胃痰濁 消食開胃 利水通便 吞酸噎腐 反胃膈雜 脹滿 除嘔吐 惡心

의 효능이 있으며, 乾薑은 大辛·大熱·無毒하며 胸滿欬逆上氣 溫中止血出汗 腸澀下痢 寒冷腹痛 中惡霍亂脹滿 風邪除毒 止唾血 冷氣 破血去風 通四肢關節 開五臟六腑 去風毒冷痺 夜多小便 消痰下氣治 轉筋吐瀉 腹脹反胃乾嘔 解冷熱毒 開胃 治心下寒痞 目睛久赤의 효능이 있으며, 山查는 甘·酸·微溫·無毒하며, 治腰痛有效 消食積 補脾 治小腸疝氣 發小兒瘡疹 健胃行結氣 治婦人產後兒枕痛 惡露不盡 消肉積癥瘕 痰飲痞滿吞酸 滯血痛脹 化血塊氣塊 活血의 효능

이 있으며, 砂仁은 辛·溫·無毒하며, 虛勞冷瀉 宿食不消 腹中虛痛下氣 主冷氣痛 止體息氣痢勞損 消化水穀 溫暖肝腎 霍亂轉筋 能起酒香味 和中行氣 止痛安胎 治脾胃氣結滯不散 補肺醒脾 養胃益腎 理元氣 通滯氣 散寒飲脹痞 止女子崩中の 효능이 있으며, 白豆久는 辛·溫·無毒하며, 積冷氣 止吐逆反胃 消穀下氣 散肺中滯氣 寬膈進食 補肺氣 益脾胃 理元氣 收脫氣 解酒毒의 효능이 있다.

表 1

	香砂六君子湯	香砂養胃湯	少陰人香砂養胃湯
方藥合編 <sup>6)</sup> 診療要鑑 <sup>8)</sup> 東醫寶鑑 <sup>9)</sup> 方藥指鍼 <sup>17)</sup> 方證新編 <sup>19)</sup> 現代方劑學 <sup>21)</sup> 增補새方藥合編 <sup>22)</sup> 醫門寶鑑 <sup>27)</sup>	香附子(木香) 砂仁 人蔘, 白朮, 茯苓 甘草, 陳皮, 半夏 厚朴, 白豆久 益智仁	縮砂仁, 人蔘, 白朮 蒼朮, 白茯苓, 甘草 陳皮, 厚朴, 木香 白豆久	
中國醫學大辭典 <sup>32)</sup> 古今名方 <sup>33)</sup> 方劑學 <sup>34)</sup>	香附子(木香) 砂仁 人蔘, 白朮, 茯苓 甘草, 陳皮, 半夏	香附子, 縮砂仁 白朮, 白茯苓, 甘草 陳皮, 半夏, 厚朴 白豆久, 木香, 知母 藿香	
中國臨床手冊 <sup>36)</sup>	〃	上方中 去木香·白豆久	
皇漢醫學 <sup>38)</sup>  方劑學 <sup>14)</sup>	上方中 去木香 加藿香  香附子, 砂仁,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香附子, 縮砂仁,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陳皮, 厚朴, 木香, 白豆久	

	香砂六君子湯	香砂養胃湯	少陰人香砂養胃湯
漢藥臨床應用 <sup>20)</sup>	上方中 去香附子, 加木香		
四象醫學原論 <sup>1)</sup> 東醫壽世保元 <sup>2)</sup> 東醫四象診療秘訣 <sup>4)</sup> 漢方內科學 <sup>5)</sup> 東醫四象處方集 <sup>10)</sup> 東醫四象大典 <sup>11)</sup> 四象方藥合編 <sup>12)</sup> 東醫四象要訣 <sup>13)</sup> 四象體質醫學論 <sup>16)</sup>	去白茯苓 加白何首烏		香附子, 縮砂仁 人蔘, 白朮, 炙甘草 白芍藥, 陳皮, 半夏 乾薑, 山查肉 白豆久

## V. 結 論

少陰人 香砂養胃湯의 效能 및 構成藥物에 對한 文獻的 考察과 이와 有關한 香砂六君子湯과 香砂養胃湯의 研究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本方의 構成藥物은 腎大脾小한 少陰人體質에 選擇의 使用하는 少陰人 藥物로 構成되어 있다.

2. 本方의 效能은 少陰人의 傷寒太陽證 및 陽明證成胃實, 胃弱及食滯, 食傷, 痰滯, 吞酸, 嘈雜噯氣, 食鬱, 浮腫裡熱, 食脹, 鼓脹, 黃疸, 便血, 滯泄, 痢疾 등으로 主로 少陰人의 脾胃疾患에 應用한다.

3. 本方에 少陰人 藥物을 加味하여 여러 證狀에 廣範圍하게 活用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洪淳用·李乙浩, 1979,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p.231,233.
2. 李濟馬, 1964,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p.14,46.
3. 尹吉榮, 1985,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p.507,522.
4. 李泰浩, 1983, 東醫四象診療秘訣, 서울, 杏林出版社, p.221,234.
5. 李基淳, 1969, 漢方內科學, 서울, 天豐出版社, p.460.
6. 黃度淵, 1978,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p.119,121,128,140,141,150,152,153,157,168,169,255,265,267.
7. 辛民教, 1979, 原色本草維新, 서울, 慶苑文化社, p.55,56,59,61,80,81,95,96,137,138,141,147,148,154,155,227.
8. 金定濟, 1974, 診療要鑑(下),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386,387.
9. 許 浚, 1980,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435,710,714,720,721,723,727,732,733.
10. 廉泰煥, 1981, 東醫四象處方集, 서울, 金

- 剛出版社, p.122,123.
11. 朴奭彥, 1977,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p.195,203.
  12. 權英植, 1973, 四象方藥合編, 서울, 杏林書院, p.24,32.
  13. 朴寅商, 1975, 東醫四象要訣, 서울, 癸丑文化社, p.10,30.
  14. 康舜殊·李尙仁, 1979, 方劑學, 서울, 癸丑文化社, p.35,36.
  15. 安秉國, 1978, 國譯編註醫學入門(II), 서울, 崇文社, p.467,470,473,482,487,491,519,760,764,768,773.
  16. 尹吉榮, 1980,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崇文文化社, pp.19-26,354,357.
  17. 孟華燮, 1976, 方藥指鍼, 서울, 杏林出版社, p.134,455.
  18. 廉泰煥, 1967, 漢方處方解說, 서울, 杏林書院, p.188,259,260.
  19. 宋炳基, 1983, 方證新編, 서울, 東南出版社, p.604,605.
  20. 辛民教·李尙仁·安德均, 1982, 漢藥臨床應用, 서울, 成輔社, p.250.
  21. 金賢濟·金光湖, 1981, 現代方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83,85.
  22. 朴鍾甲, 1976, 增補새方藥合編, 대구, 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部, p.75,97.
  23. 宋炳基, 1983, 漢方婦人科, 서울, 信一印刷社, p.622.
  24. 李尙仁, 1975, 本草學, 서울, 醫藥社, p.50,55,57,63,102,340,344,362,373,379,384,388.
  25. 洪淳用, 1982, 四象體質論, 大韓韓醫學會誌 第3卷 第2號, p.66,68.
  26. 梁基相, 1983,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液學的研究, 慶熙大學院論文集, Vol.6, p.34,39.
  27. 周命新, 1975, 醫門寶鑑, 서울, 精版社, p.69,70.
  28. 張仲景, 1972, 仲景全書, 臺北, 集文書局.
  29. 張介賓, 1979, 張氏景岳全書,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p.909,910,911,927,928,929,938,952,954,955.
  30. 李 梴, 1979, 醫學入門,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p.208,209,210,211,213,225,238,239.
  31. 張·馬合註, 1977, 黃帝內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靈樞 pp.361-373,406-410.
  32. 謝 觀, 1980, 中國醫學大辭典 第二冊, 臺北, 商務印書館, p.2023.
  33. 楊蕙樣·劉翠榮, 1983, 古今名方, 中國, 河南科學技術出版社, p.118,
  34. 上海中醫學院編, 1975, 方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p.225,226.
  35. 上海中醫學院編, 1981, 中草藥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p.42,129,222,224,358,453,460,511,519,520,526.
  36. 原安徽中醫學院編, 1983, 中醫臨床手冊, 서울, 成輔社, p.344,374.
  37. 龔恭正, 1980, 本草備要, 臺南, 西北出版社, 卷1, p.1,2,3, 卷2, p.17, 卷3, p.17,18,19, 卷4, p.32,35, 卷5, p.13.
  38. 李時珍, 1980, 本草綱目,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400,401,406,407,426,494,495,505,506,694.695,928,1014.
  39. 平岡喜言, 1975, 皇漢醫學叢書, 第十一卷, 서울, 平凡出版社, p.73.
  40. 李乙浩, 四象醫學說批判(上, 中, 下), 서울, 大韓韓醫學會報, 通卷13, pp.2-8, 通卷14, pp.28-32, 通卷15, pp.27-30.